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2008. 광휘의 속삭임, 서울 : 문학과 지성사

사랑의 카드 보내기

연말연시 연하장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시면서 이웃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매년 유한양행, 삼양사 등의 기업들과 많은 사회복지 단체
들이 동참하고 있는 사랑의 카드 보내기에 여러분의 관심
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100매 이상 주문 시 내지와 봉투 무료인쇄

- 시중 판매가의 20% 할인가

- 무료 택배 발송

- 수익금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활용

☎주문 및 문의 : 전화 02-365-5540 / 홈페이지 www.krfund.or.kr

희망나래

2014 AUTUMN VOL. 92





한국재활재단 주최 제9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2014) 문상수상작
김선국 (품은 이루어진다) 450(O/X)350(H)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되고 싶으세요?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 한국재활재단이 교육생 여러분을 모십니다.

- 교육명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 교육
- 교육과정 I.신 규: 총 40시간(월~금)
II. 유사경력자: 총 20시간(월~수)
- 교육장소 아현감리교회
(지하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 3분 거리)
- 교육일정 홈페이지 www.krfund.or.kr
(당월, 익월 교육일정 게시)
- 교육기간 연중, 매월 2~3회 실시
- 기타문의 전화 02)365-5548

KRF (Korea Rehabilitation Fund)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은 장애인재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원법인으로 설립되어, 저소득 장애인 가정 청소년 장학금지원사업, 장애인인식 개선사업,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교육, 행복플러스가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며, 전국의 여러 사회복지시설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윤영노 (주)자텔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청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

이 사

권태근 (주)DI 부사장
김태진 캔두무역 대표
문희중 건화조경(주) 대표이사
신언항 (재)중앙입양원 원장
안장혁 (주)소핑 · 넷 대표이사
여삼열 남서울복지재단 지도목사
장보식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전호석 (주)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정은아 송의여대 겸임교수
정진규 (주)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조남원 삼부토건(주) 대표이사부회장
조덕자 부산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감 사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김호순 김호순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장대익 이산회계법인 이사

홍보대사

싸 이 연예인

운영시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문동팔)
상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영신)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혜정)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 문동팔)
하누리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이미순)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 (시설장 문동팔)
다솜장애인공동생활가정
IT장애인공동생활가정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최종병기공동생활가정
행복플러스가게하이전사
행복플러스가게이진아도서관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은장애인단기보호시설
상리어린이집 (원장 김보경)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윤성희)
삼프로 장애인영농사업단 (시설장 김송석)

희망나래

2014 AUTUMN VOL. 92

CONTENTS

광고	02	활동보조인교육 안내
CONTENTS	03	재단소개, 표지이야기, 목차, 발행안내
SPOT REPORT	04	제9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 오프닝
행복한이야기	08	최종병기 공동생활가정 추석 스케치
KRF NEWS	12	법인 사무국 및 산하기관 주요소식들
나눔회원	18	후원현황 및 후원안내
알려드립니다	20	사랑의 카드 보내기



꿈꾸는 마을
제9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대상
김나경 작 (자폐성장애, 소요공방)

희망나래 2014년 가을호 통권 제92호

발행인 윤영노 / 발행일자 2014년 10월 01일 /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편집위원 김규호, 김선경, 박명심, 박빛나래, 박진옥, 백성욱, 신혜경, 이복현, 이승이, 이재아, 이혜찬, 최영화
주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85-1, 4층 (북아현동, 무림빌딩) / www.krfund.or.kr
전화 02-365-5540 / 팩스 02-365-7740 / 편집 최성주 / 디자인 마들



1 전시 오프닝 후 대상 수상자와 함께
2 입선 수상작 <휴가> 에바다 학교
3 테이프 커팅하는 내빈과 대상 수상자
4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순간

제9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태어나 처음 크레용을 손에 쥐고 열심히 그리기 시작한 집.

그 집을 그리던 아이가 자라서 소녀가 되었어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 소녀는 작은 동물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꿈을 꾸었지요.

토끼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2층 창문이 커다란 집에서,

여우는 많은 친구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대문이 반짝이는 집에서,

소녀는 엄마, 아빠, 동생과 맛있는 요리하며 지낼 수 있는 창문이 아주 많고

굴뚝이 아주 큰 집에서 지낼 꿈을 꾸었어요.

여러 모양의 집에 꿈을 입히듯 예쁜 집에 꽃 빛깔을 입힐 꿈도 꾸었지요.

알록달록 색깔의 창문, 지붕, 대문, 굴뚝까지... 소녀의 손이 닿으면 무지개 꿈을 꾸게 되어요.

어릴 적 꿈처럼 ... 소녀가 만든 집들이 모여 마을이 되었어요.

이제 소녀는 우리와 함께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시도록 중 발췌

제9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대상 수상작 <꿈꾸는 마을>은 손으로 빚은 32채의 예쁜 집들로 꾸며져 있다. 이인진 심사위원장(홍익대학교 도예연구센터 소장)은 심사평에서 ‘소녀의 감수성 어린 꿈이 소박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각박해진 현실 속에서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메마른 감성에 울림을 준다’고 하였으며, 올해 단연 돋보이는, 독보적인 작품이었다고 평한다.

대상 수상자 김나경 학생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18세의 수줍음 많은 소녀로 유난히 엄마를 따르는 예쁜 아가씨였다. 나경 양의 엄마와 엄마친구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축하하러 오신 걸 보니 나경양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대담한 표현력이 이런 사랑의 힘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금상 <꿈꾸는 나무>



금상 <너와 내가 우리될 때 통일>



은상 <입맞춤>



은상 <토기의 재발견>

해마다 열리는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이 9회째를 맞았다. 9월 24일 전국은행 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장교동 한화빌딩 1층에 있는 중구문화원에서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25일에는 파리공원에서 문화나눔축제가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에는 임직원과 내빈, 수상자, 친지, 가족, 자원봉사자로 나선 한화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상자들이었지만 상장과 상금, 부상으로 전달된 크라운제과의 과자 선물을 받고는 모두 똑같이 함박웃음을 지었다. 싱글벙글하는 금상 수상자 박진호 씨(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에게 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교회 가서 감사헌금 내고, 커피 한 박스 사서 복지관 친구들에게 즐겨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소박한 기쁨이 있을까.

정유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문동팔 관장의 경과보고와 이인진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으로 이어진 시상식에는 운영노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청자 상임이사, 전호석 이사, 신언향 이사, 한화케미칼 박정근 상무, 한화S&C 박찬홍 상무, 크라운제과의 윤홍덕 마케팅 부장이 참석하여 시상 및 감사패 수여, 축하 등으로 자리를 빛내주었고 수십명의 일명 오렌지군단(한화케미칼, 한화S&C 직원 봉사자들은 오렌지색 조끼를 입고 있다)이 함께 하여 더욱 훈훈한 자리가 되었다.

시상식장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강병규님 (한화S&C 기술혁신팀) 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저는 오늘 입선 수상팀 수상자들을 무대로 안내하고 가이드해 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예전엔 올해 처음 참석했는데, 장애인들의 도예활동과 이런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런 행사가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어 조금은 얼떨떨하지만 함께하게 되어 보람도 있구요...”

시상식 후 자리를 옮겨 중구문화원에서 전시장 테잎 커팅을 한 후, 관람이 시작되었다. 형형색색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을 돌아보며 관람객들은 삼삼오오 즐거운 담소를 이어갔다. 9월 25일 문화나눔 축제는 파리공원에서 먹거리 장터와 기부물품 바자, 그리고 장애인, 직원, 자원봉사자 60명으로 구성된 플래시몹 행사로 꾸며졌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의 자리였다.

내년이면 우리 법인이 도예공모전을 주최한지도 10년이 된다. 그동안 이 특별한 축제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광장이 되어왔다.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한화케미칼, 한화S&C 임직원과 묵묵히 제자리에서 도예를 지도해 오신 선생님들,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신 심사위원들이 없었다면 즐거운 축제는 계속 되지 못했을 것이다. 보다 넓은 장애인 예술의 저변확대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함께 멀리’가 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본다. 🇰🇷

글, 사진 최성주 사회복지사



최종병기란?

얼마 전 상영되었던 ‘최종병기-활’이란 영화를 알고 있다면 영화 제목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화 훨씬 이전, 1989년 6월 30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 설립되면서부터 언덕이 되어주셨던 초대 이사장 고 문병기 박사님을 옆두에 두고 최종병기란 이름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명으로 사용하였다.



운영하게 된 계기는?

1998년 봄 어느 날 한국재활재단으로 장애아를 둔 한 어머니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자폐성장애가 심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부산에 계신 시아버지께서 운명하셔서 상을 치루기 위해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이삼일 일시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받은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 사례 회의를 거쳐 이런 저런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시보호를 실시하였고 시부모상을 치루고 온 보호자에게 자녀를 무사히 안겨줄 수 있었다. 그 후 유사한 상담이 자주 이루어졌고, 특히 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장애학생들을 방학 기간동안 보호 의뢰하는 보호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장애 아동들은 성장하여 청년의 시기를 거쳐 이제 장년이 되었다. 보호자는 늙어가고 장애 자녀들은 제자리에 있고, 부모들의 한숨만 깊어 가던 중, 필자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자리를 잡자 건의가 들어왔다. 장애가 심하여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가정을 대신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 때 필자가 전해준 말은 “누군가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들고 앉아 있는 보호자들이 되지 말고 지금

부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십시오.” 2014년 새해 설계를 하면서 중증장애인 평생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로 마음을 먹고, 6월경 서대문구에서 공간이 확보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SH공사와 LH공사의 임대 공간 유무를 확인하던 중, 그룹홈 운영법인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여러 지역 중 서대문구에 부담되지 않는 전세 물건이 나와 있었고 이것을 신청하여 8월에 한국재활재단이 운영 법인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8월

뜻을 같이한 보호자 5명이 합심하여 전세 비용과 비품 구입비를 마련하였고, 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될 때까지 필자가 주말 봉사로 장애 청년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그룹홈 ‘최종병기’를 준비하였다.

2014년 9월

최종병기 생활 공간에 적합하게 가구를 비치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각자 개인물품을 가져와 꾸며서 9월 6일 오후 6시부터 최종병기 운영을 시작하였다.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추석 연휴기간이었다. 5명의 발달장애 청년들과 활동을 시작

최종병기의 추석 스케치



글. 문 동 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최종병기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하려고 하는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추석 연휴기간 장애 아들을 돌봐줄 곳을 찾는다는 전화였고 최종병기를 안내했다.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준비된 곳이 ‘최종병기’였다. 다행히 기존 5명 중 한 청년은 가정에서 토요일을 보내고 일요일 아침에 오겠다고 했다. 드디어 5박 6일을 함께할 발달장애 청년 5명과 만나는 시간. 새로운 공간으로의 입장부터 거부한 일명 둘째. 다행히 얼굴을 익힌 선생님의 권유로 입장하자마자 세탁물을 세탁해야 한다며 가지고 온 배낭의 의류를 세탁기에 넣었다. 하나 같이 계속해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었다. 저녁식사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씻기고, 자리를 펴고 분주한 가운데, 누가 편안하게 소파에 앉으면 누구는 가부좌상으로 방바닥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누가 문을 열면 누구는 닫고... 정말 손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첫날 밤. 둘째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 속에 새로운 환경 파악을 위해 서성거리는 첫째와 다섯째. 정수기 물을 지속적으로 찾는 손님 박군과 옷을 입고 제자리에 앉아서 소변을 보는 넷째. 시키지 않아도 밀대를 가져와 소변을 닦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둘째. 누군가 불을 끄면 누구는 불을 켜고, 삼푸를 지속적으로 펌핑하고, 치약을 마구 짜고, 화장지를 계속 풀고, 쌀을 한 번 씻어 보더니 계속 몰래 쌀을 씻는다며 방바닥에 쌀을 흘려 일을 만들고... 한밤중에 일어나 여기 저기 옮겨다니며 눈을 붙인 청년들을 제자리로 안내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차버린 이불을 덮어주면서 필자도 서툴고 동거인들도 낯선 첫 날 밤은 그렇게 비몽사몽 흘러갔다.

“누군가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들고 앉아 있는 보호자들이 되지 말고 지금부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십시오”

9월 7일. 둘째날 아침 5시 30분 기상 벨이 울렸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5명을 기상시키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하고 양치시키고 샤워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 3시간을 부지런히 움직이니 겨우 외출 준비가 끝났다. 둘째에게 설거지를 시켜 보았다. 가슴 높이까지 그릇을 가져와 수세미질을 하는 바람에 옷옷에 거품이 가득했고 수저는 잘 닦지 못했다. 청년 각자에게 지정석을 주었으나 넷째는 자기 자리에 집착이 강했고, 둘째는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



날은 교회에 가는 날이었다. 오전 9시경 셋째가 합류하였고 ‘6명의 청년들과 어디로 가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궁리하던 중, 필자에게 익숙한 곳보다는 장애청년들을 환영하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차량을 이용하여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서대문교회였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날은 추석 전 날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부적응도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처음 보는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예배 후 점심식사를 할 때 다음 주부터 ‘최종병기’팀을 마중할 분들이 식사보조를 해주셨고, 감동과 감사로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오후에 친구들을 행주산성에서 거닐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지난 밤 잠을 설친 이유로 피곤했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최종병기로 돌아와 세탁을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을 따랐다. 청년들이 변호기가 달린 현관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다시 저녁이 되고 식사준비를 하고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세탁물을 널고 청소하고 씻기고 ... 그러나 대부분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았다. 질문이 계속되고 ‘먼저 있던 곳으로 가야한다’, ‘서울교회 가야한다’는 등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갔다. 지원 인력없이 6명의 청년들과 그렇게 두 번째 밤을 보냈다.

추석 당일. 이들과 만난 지 삼일째 되는 날엔 서울대공원에 가기로 했다. 이 날 주간 활동에는 협력자들이 2명 합류하였고 6명의 기존 멤버 외에 2명의 장애인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에게는 기저귀를 착용시켜야 했다. 차에서 내리면 화단이나 담벼락을 찾아 느닷없이 바지를 내렸고, 사람들이 보는 곳이라 못하게 저지하면 여지없이 잠시 후 다시 그 곳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석날 대공원 여행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공동체 운영을 하면 도와줄 거라 믿었던 박선생님이 최종병기로 와서 저녁 식사는 물론, 다음 날 아침 거리도 준비해주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해주고 갔다. 박선생님이 부엌 일을 할 때 필자는 청년들을 씻기고 한결 수월하게 옷을 갈아입혔다. 야외활동 덕분에 셋째날 밤은 대부분 쉽게 잠을 청할 수 있었지만 넷째는 밤새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다. 삼푸를 숨기고 온수를 차단하고... 말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

넷째 날. 주간활동은 강화도 교동여행이었다. 점심식사를 준비해오신 협력자가 있었고, 2대의 승합 차량을 이용하여 추석 특별프로그램만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합류하였다. 강화 교동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지만 자연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 항구에 들러 마른 새우를 사고 강화나들이길을 걷고 돌아왔다. 주간활동에 참여했던 협력자들이 부엌일을 도와주셔서 저녁식사를 쉽게 마치고 빨리 쉴 수 있었다. 둘째는 이제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방문을 잠가놓고 노크를 해도 무시하곤 했다. 첫째는 화장실 앞에 서서 소변으로 한강을 만들었고 샤워시킬 때 서서 응가를 해도 버릴 번기가 가까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손님 박군은 예전에 비해 한결 보호하기 쉬웠으나 식사시간이 다가오면 여전히 소리를 냈고 그래서 비상용 식사를 준비해야만 했다. 박군은 노랫소리가 들리면 울부짖는 소리를 내곤 했는데,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연휴 마지막 날. 주간 활동은 포천 산정호수 근처의 명성산과 평강식물원을 목적지로 삼았다. 서대문그룹홈 여성 친구들을 합류시켜 휴일 여가활동을 지원해주었다. 도시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포천까지 가는 길은 정말 잘 달릴 수 있었고, 산정호수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명성산 억새꽃밭을 오르도록 하고 여성들과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청년들은 평강식물원을 관람하도록 했다. 명성산엔 가족 단위의 산행팀이 간간히 있었고

폭포가 있는 산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평강식물원 관람팀과 합류하여 서울로 돌아와 여성들을 그룹홈에 내려주고 나머지는 최종병기에 모여 저녁식사를 하였다. 평상시에 뭉치던 행복연합군들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봉사에 참여하여 한결 힘이 되었고, 저녁에 역할을 나눠 감당해줘서 잘 정리할 수 있었다.

다시 날이 밝아 9월 11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8시가 조금 넘어 서은단기보호시설로 청년들을 이동시키고, 손님 박군을 복지관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5박 6일의 장정을 마쳤다. 24시간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낮에 운전만 아니라면 청년들을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었을텐데 다음 날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야한다고 생각했고, 필자 혼자서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5박 6일이었지만 진행하면서 지원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밤새 자지 않고 냉장고를 뒤져 비타민음료 10병을 마시고 흔적을 남겨놓은 청년과 씻지도 않은 복숭아 4개에 이빨 자국을 남겨놓은 청년, 온 옷가지를 방바닥에 펼치고 싶어하는 청년, 피를 흘려야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옷을 벗고 씻기를 반복하는 청년. 이들이 향후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대해보면 어떨까?

부모들은 장애 자녀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살다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인해 좀 안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감사하단다. 행운이란다. 부모들이 지금과 같이 계속 감사할 수 있고 행운을 가질 수 있도록 필자는 심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법인사무국

3/4분기 활동보조인교육 순조롭게 진행

상반기에 이어 3/4분기에도 활동보조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추석 연휴로 9월에는 1회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95명, 유사경력자 27명이 이수하였다. 2014년 이수생은 9월 30일 현재 총 1,532명이며, 연말까지 신규, 유사 각 5회씩 교육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 / 전화 02-365-5540 홈페이지 www.krfund.or.kr

3분기 장학금 지급

한기장학문화재단과 서서울로타리 장학생에게 3분기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제 2차 임시이사회

2014년 제2차 임시이사회가 9월 28일 르네상스호텔 중식당 가빈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승인, 상리종합사회복지관, 하루리주간보호센터, 구립서대문그룹홈의 재수탁 신청 승인 및 시립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운영규정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사 선임

우리재단의 이사로 김태진 캔두무역 대표, 장보식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은아 승의여대 겸임교수, 여삼열 남서울복지재단 지도 목사가 선임되었다.

최종병기 공동생활가정 개소

우리 재단이 남성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최종병기를 개소하였다.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최종병기는 SH공사가 임대한 공간에 뜻을 함께한 5명의 장애인 보호자들이 전세비용과 비품구입비를 모아 마련되었고, 주말과 공휴일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남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재활재단의 초대 이사장 고 문병기 박사를 기리고자 최종병기라는 시설명이 지어졌으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이 있을 때까지 문동팔 사무국장 이 주말과 공휴일에 봉사하고 있다.

상담 및 문의전화 02-365-5540

영농사업단 서울시와 업무계약 체결

서울시가 도시농업분야 장애인 직업재활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 영농사업단 사업 공모 결과, 우리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동안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연평리 부지에 영농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영농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무료문화공연 마당극 ‘단비아, 꽃비아’ 개최

7월 18일 (금),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주민복지증진사업 무료문화공연 마당극 ‘단비아, 꽃비아’를 개최하였다. <경기도 문화정책-찾아가는 문화 활동> 소나무극장(대표 김광태)의 지원으로 펼쳐진 이번 작품은 환경과 자연, 그리고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극에 신명나는 난타공연을 가미시켜 흥겨운 놀이의 장이 되었다.



늘해랑여름학교 푸르미들의 튼튼교실 진행

7월 23일 (수)~ 8월 5일 (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늘해랑여름학교 푸르미들의 튼튼교실’이 진행되었다. 아이스브레이킹, 제과제빵, 문화체험(영화관람 광명CGV), 음악활동, 방송댄스, 직업체험(한국잡월드), 물놀이(웅진플레이도시)등의 프로그램을 총 10회기 동안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들과 함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하였다.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I Love Family 진행

7월 26일 (토),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I Love Family 1회기가 진행되었다.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광명시에 거주하며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신체활동, 미술치료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오는 12월 6일 (토)까지 총 6회기가 진행된다.



제38기 청소년자원봉사학습활동 배우며 실천하는 자원봉사 [진로, 자원봉사와 win-win하다!] 진행

8월 5일 (화) ~ 8월 11일(월), ‘제38기 청소년자원봉사학습·활동 배우며 실천하는 자원봉사’가 진행되었다. 사회연대은행과 광일음악사가 지원한 프로그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광명시 및 인근지역 중1~고3의 청소년 73명이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일 4시간씩 5일(총 20시간)동안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함께 ‘진로, 자원봉사와 win-win하다!’라는 주제에 맞는 활동(토론, 실천계획수립, 실천 활동, 평가)을 함께하였다.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함께하는 HAHA 구석구석 마을탐방

8월 8일 (금)/9월 5일 (금),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마을탐방’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가족구성원이 광명시 내 영화관, 광명가학광산동굴, 도예방, 광명뿔밭보급소 옥길뿔밭 총 4개의 문화공간을 탐방하며 지역주민으로서 마을을 좀 더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보호센터 특별프로그램 - 팔빙수만들기

8월 8일 (금), 어르신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 ‘팔빙수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팔빙수에 들어가는 재료를 맞춰보고 만드는 방법도 알아본 뒤, 어르신들이 직접 곱게 간 얼음에 팔, 미숫가루, 우유, 후르츠카테일 등을 넣어 팔빙수를 만들었다.



제18회 사랑의 무료이동진료

8월 11일 (월), 서울아산병원 무료순회진료팀과 함께하는 제18회 사랑의 무료이동진료가 진행되었다. 광명시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경로식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찰 및 투약 서비스를 실시하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고, 건강을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었다.



광명21세기병원과 함께하는

나눔활동 업무협약 체결

8월 27일 (수),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광명21세기병원(원장 전형준)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대상자 의료서비스 연계,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건강상담 진행, 경로당 13개소 활동비 지원에 따른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독려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위해 상호 교류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장미로타리클럽 사회공헌활동

추석맞이 사랑 나누기 전달식

9월 3일 (수), 광명장미로타리클럽과 함께하는 경로식당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나누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회원들이 직접 꼬치전과 껌전을 만들어 경로식당 어르신들께 대접하였고, (사)온누리복지회 금화온누리약국에서 후원한 멀티비타민, 갈슘을 추석선물로 전달해 드렸다.



광명학당 Silver Scouts 은빛문화기행

9월 16일 (화), 광명학당 Silver Scouts 어르신들과 함께 공주, 부여에서 백제를 만나보는 은빛문화기행을 다녀왔다. 어르신들은 열심히 공부하던 교실을 벗어나 같은 반의 벗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백제시대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역사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었다.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벼룩시장

7월 3일 지역 내 친구들과 함께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자신들이 가져온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의 흐름을 통해 경제적 관념을 길러주고 물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여성가장자립지원사업 Beautiful life “워킹맘이 돌아왔다” 가족캠프

8월 23일 가족간의 유대감 향상을 위한 가족 지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통도아쿠아환타시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평소 쉽게 갖지 못하는 가족 나들이의 기회로서 엄마와 자녀들 간의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리생태공원 개소식

8월 27일 미래영도포럼과 연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사회공헌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리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개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발길이 거의 없던 황량한 공간이 그린에너지 체험장과 건강한 운동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마을 만들기 초록캠페인 활동 실시

9월 2일 영도구 지역의 건강한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향기로운 허브화분 500개를 나눠드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가정에 향기로운 허브향이 벌써부터 나는 것 같습니다.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

추석을 맞아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각 참기름 90세트와 진도군 미역 50세트를 후원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께



추석 명절선물로 나누어드렸습니다. 평소 가족들과 교류가 없어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풍족한 한가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리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연계 문화체험 해양탐험대

9월 3일 아동센터와 인접한 국립해양박물관으로 해양탐험을 다녀왔습니다.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박물관 전시 관람을 하였고, 4D영상 관람도 하였으며 친구들이 직접 조선통신사선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색다른 경험에 무척이나 신난 하루였습니다.



상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다도 체험 교실

9월 5일 추석을 맞이하여 올바른 인사와 차예절을 배우는 다도 체험 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었으나 여유로운 음악과 은은한 차향기와 함께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신나는 연극관람 나들이 - 연극 <곰, 청혼>

8월 23일(토) 대학로 노을소극장에서 서대문구청 문화나눔 행사 후원을 받아 연극 <곰, 청혼>을 관람하였습니다. 연극이 종료된 후 무대에서 출연배우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JOB START 2.0 요리사 체험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중등 전환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체험 중에 요리사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초코시럽이 들어간 달달한 케익에서부터 시원한 팔링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까요? 그 꿈을 응원합니다.



성장디딤돌학교 6기

2014년 성장디딤돌학교 6기 프로그램은 아동의 즐거운 여가문화 활동에 목적을 둔 기존의 방학 프로그램의 틀에서 벗어나, 아동의 현 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서 아동의 강점과 성장점을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 된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1:1 매칭이 되어 1주일동안 실내와 야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웅진플레이도시에서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보내고, 미술수업에서는 협동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품 멋지죠?

JOB START 4.0 자기주도적 전환교육 2학기 개강

가재울고등학교와 상암고등학생들이 함께 하는 Jobstart 4.0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학생들의 욕구조사에 따라 8월과 9월에는 인사동에 있는 목공예 체험장에서 목공체험을 하는데, 높은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JOB START 6.0 이력서 쓰기

성인 장애인분들과 이력서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은 오랜만에 작성해보시고, 처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해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력서 쓰기'의 목적은 취업 역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재취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드리고, 역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필요한 구직 기술을 익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간 직원교육 - 소방교육 실시

6월에는 2주 연속으로 직원들의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일 선생님이 주관해주셨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실습

우리복지관은 훌륭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해 실습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 실습생 8명이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실습 일정을 모두 수료하여 수료증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실습 과정을 잘 마친 김태욱, 김태희, 김상애, 조민하, 박성범, 이고은, 류나, 안수빈 학생에게 좋은 날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자연 속 마임과 함께하는 힐링 캠프

7월 17~18일 여주에 위치한 마임의 연수원의 초대를 받아 힐링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캠프는 보호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용자와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또한 시설장님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특히 좋았고, 연수원은 식사, 간식, 숙소는 물론 극진한 서비스까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농장체험 농작물 수확

농장에서 6월부터 재배하던 고추, 오이, 가지 등을 수확하였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배추와 무를 심고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 기관 방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께서 9월 4일 오후에 기관을 방문하셨습니다. 추석을 맞아 송편을 빚던 이용자들과 자리에 앉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셨습니다.



건강검진

9월 25일 서대문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의 건강을 잘 검진하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꽃다발 없는 자선음악회의 기부처로 선정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노래를 하는 솔러스코랄 합창단은 3년에 한번씩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정기연주회에서는 꽃다발 대신 기부금을 모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고 있는데, 이번 2회 연주회는 9월 27일 저녁 영락교회에서 있으며, 연주회에서 모아진 기부금은 우리 시설에 기부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 다솜

치즈마을 체험

7월23일 파주임실치즈마을에서 치즈와 피자 만들기, 물썰매, 뽕튀기 체험, 송아지 우유주기 등의 체험으로 하루를 알차고 즐겁게 보내고 왔습니다.



한강래프팅 대회 참가

8월 14일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대회 실시하는 래프팅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비록 대회 순위는 상위권이 아니지만 새롭고 즐거운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내년이 벌써 기대됩니다.



아이스뮤지컬 관람

8월 22일 아이스뮤지컬 아나스타샤를 관람했습니다. 처음 관람하는 장르인데도 이용자들이 멋진 관람 예절을 보여주었고 커튼콜 때는 기립박수까지 보내셨습니다.



인권 지킴이단 발대식

다솜센터 인권 지킴이단 발대식이 8월 28일에 열렸습니다. 센터 이용자들의 인권 증진으로 찾아오고 함께 하고 싶은 센터가 되도록 인권지킴이단과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치과진료

9월 2일 산하기관과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의 이동치과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을 받았습니다. 치과검진을 두려워하시는 이용자들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검진을 마쳤습니다.



하누리주간보호센터

물놀이 여름캠프

1박 2일 여름캠프로 무창포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초여름이라 인적이 한산하여 잘 가꿔놓은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기회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해변도 거닐고, 조개와 다슬기, 참게도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션 앞에 설치된 수영장에서도 물놀이를 하였고, 삼겹살 숯불구이, 한식 부페 등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캠프를 보내고 왔습니다.

구급 및 응급처치교육

금천구보건소에서 응급처치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 발생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생명을 구하고 의료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련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가슴 압박과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곤지암화담숲 나들이

곤지암 리조트에 있는 화담숲 나들이는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무덥지 않아 좋았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정상주변을 산책하였습니다. 다양한 나무들의 이름을 살펴보고 나뭇잎의 색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 가고 있어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며 내려왔습니다.



9월 저희 옥상텃밭에 놀러오세요

지난 해에 이어 텃밭에 친구들과 함께 배추를 심었는데 무성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주고 가꾸느라 바쁘고 벌레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잡으려는 친구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잘 가꾸어서 수확을 하면 맛있게 김장을 담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나누기를 할 계획입니다.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가학 광산동굴

8월 나들이는 광명에 있는 동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날씨가 더웠는데 동굴 앞에 도착하자 시원한 공기가 주간보호 식구들을 반겨 주었습니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한 후 동굴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약간 겁을 내는 분들도 있었지만 금방 익숙해졌는지 주변을 살펴며 동굴을 관람 하였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고 그 안에 식물과 물고기 등이 전시되어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9월 건강 검진 및 치과 진료 진행

주간보호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건강검진과 치과진료를 계획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건강을 체크하고 이번엔 건강 검진 뿐아니라 치과 진료를 함께 진행하여 이용자들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를 권장하려고 합니다.

서은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배드민턴교실

7월 16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장애인체육회 전문강사와 함께 공동산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교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온천나들이

7월 24일(목) 우리는행에서 후원을 받아 화성시에 위치한 '하피랜드'로 온천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도중 우리꽃식물원에서 예쁜 꽃들도 보고 하피랜드에서 온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텃밭가꾸기

9월부터 서대문구청에서 텃밭세트를 받아 시설육상에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배추, 무, 모종으로 아직은 작지만 매일 이용자들이 물을 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2013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3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영도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 및 소득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크린리더스’ 홈크리닝 교육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크린리더스’는 입주청소, 이사청소, 거주청소 등의 청소대행업을 시작하기 위해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홈크리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홈크리닝 교육 및 실습으로 영도구 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주방 및 욕실을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바우처 및 복지간병 종사자 교육

바우처(가사간병, 노인돌봄)사업 및 복지간병 사업단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사례를 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산지부 정춘아 상담소장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아이티장애인공동생활가정

천안 독립기념관 탐방

8.15 광복절을 맞아 천안 목천의 독립기념관을 탐방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은 독립기념관 관람을 위해 서울에서 천안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승일씨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녔는데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광복절에 의미있는 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 드립니다.



추석맞이 빈대떡 부치기

지역교회공동체 행사로 ‘추석맞이 빈대떡 부치기’에 참여하였습니다. 교회 기관별로 각기 색다르게 맛을 내어 부쳐진 빈대떡은 등근 보름달처럼 푸짐하여 이웃의 빌라 주민들과도 나누는 넉넉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왕산해수욕장

8월 1일과 2일 걸쳐 휴가를 맞은 이용자와 함께 인천 왕산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바닷바람도 쐬고



익일 출근시간이 부담스러워 보기 어렵던 심야영화—영화 ‘명량’을 보며 알찬 휴가를 보냈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온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는 이웃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를 전합니다.

발달장애인지기권리주장대회 대상 수상

8월 12일 관악농협문화센터 6층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지기주장권리대회에서 이용자 박준석씨가 참가하여 11명의 참가자 중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바다열차 여행

9월 13일 토요일, 개인사정 및 건강 등의 사유로 그룹활동 프로그램이 저조했던 박준석씨와 전현민씨와 함께 강원도로 바다열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함께한 가족들이 힘들 때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인을 위한 토요건강강좌 참여

평소 북부 비만으로 식단조절 및 개별운동 등을 해온 지현씨가 8월 23일 서대문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직장인을 위한 토요건강강좌 참여하였습니다. 동기화되어서 직원의 도움없이 스스로 조절해가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나들이

이용자들이 여름을 맘껏 느낄 수 있도록 인천 무의도에 있는 하나개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시설장님께서도 함께하셔서 더욱 즐거웠고 안전한 운전으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절 특별 캠프

광복절 특별 나들이로 충북 괴산에 1박 2일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잠을 자고 온다는 설레임으로 짐을 챙기는 이용자들을 보며 저도 설레임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해주신 자원봉사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추석 특별나들이

추석 연휴기간 최종병기 팀과 함께 산정호수, 평강식물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평강 식물원에서 넓은 잔디밭을 보며 눈이 시원했고 자연의 향수를 마음껏 느끼며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외롭게 지낼 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도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후원자님의

정성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21일 ~ 9월 20일

개인후원		김남아	30,000	김용구	90,000	김희영	30,000	박용철	15,000	손효정	15,000	염용태	300,000
강경윤	30,000	김대권	30,000	김용우	150,000	나선규	20,000	박용현	3,000	손희송	30,000	오경찬	3,000
강금애	3,000	김대성	15,000	김원희	60,000	나혜실	30,000	박용환	30,000	송기형	30,000	오광자	30,000
강동관	30,000	김대성	10,000	김유석	30,000	남궁순	10,000	박용희	30,000	송영미	30,000	오승석	6,000
강동균	15,000	김동진	30,000	김유환	450,000	남궁운평	20,000	박유림	90,000	송영호	60,000	오예슬	10,000
강동형	30,000	김동훈	30,000	김은영	20,000	남형진	30,000	박윤경	15,000	송재익	30,000	오정미	9,000
강선영	30,000	김만제	30,000	김은정	10,000	남효은	30,000	박은영	10,000	송준호	30,000	오형욱	30,000
강순복	30,000	김문위	15,000	김은주	30,000	노근욱	30,000	박이정	30,000	송형필	90,000	왕수민	15,000
강신욱	60,000	김미경	20,000	김은주	30,000	노기백	30,000	박재숙	150,000	신동춘	9,000	위성재	30,000
강영례	3,000	김민정	15,000	김은진	15,000	노준찬	10,000	박정배	15,000	신두철	150,000	유승훈	150,000
강영신	30,000	김민철	15,000	김을권	3,000	도상일	6,000	박정훈	10,000	신순정	30,000	유양환	30,000
강우재	60,000	김민태	5,000	김을분	3,000	도영호	30,000	박지선	20,000	신양호	30,000	유여령	30,000
강유정	10,000	김범철	60,000	김인경	60,000	류지훈	30,000	박현우	15,000	신유림	20,000	유영선	30,000
강윤심	30,000	김범한	30,000	김재민	6,000	류현수	30,000	박현주	15,000	신유영	15,000	유인철	30,000
강은경	30,000	김병수	30,000	김재승	30,000	맹선재	300,000	박형인	30,000	신은림	30,000	유재오	10,000
강은숙	15,000	김병헌	30,000	김재욱	5,000	명정현	15,000	박형일	15,000	신인자	15,000	유주만	10,000
강진아	20,000	김보경	90,000	김정규	60,000	무 명	10,000	방승환	10,000	신인혜	60,000	유진태	60,000
강평재	500,000	김보순	30,000	김정미	2,000,000	문광술	60,000	배명인	150,000	신정문	15,000	유한선	30,000
견성수	30,000	김상우	30,000	김정아	5,000	문동팔	10,000,000	배서현	150,000	신종성	15,000	유홍선	40,000
고병수	30,000	김상옥	30,000	김정아	30,000	문성호	200,000	배은주	45,000	신종진	30,000	유화순	30,000
고상현	30,000	김상준	6,000	김정현	15,000	문세은	30,000	배희연	20,000	신진아	20,000	윤금례	15,000
고수자	35,000	김서현	4,000	김제광	60,000	문현주	10,000	백승구	10,000	신한솔	60,000	윤복희	30,000
곽동근	6,000	김선경	100,000	김제구	150,000	문희태	150,000	백승구	30,000	신혜교	15,000	윤봉식	3,000
곽종임	50,000	김선남	60,000	김종순	10,000	민경화	30,000	백원숙	30,000	신혜민	15,000	윤성희	120,000
구순주	30,000	김선아	20,000	김종옥	5,000	민병운	20,000	백은아	15,000	신혜정	2,061,172	윤세호	3,000
구영옥	30,000	김선옥	15,000	김종혁	30,000	민성기	150,000	백창현	15,000	신혜정	530,000	윤은실	30,000
구자근	30,000	김성미	220,000	김주형	30,000	박경숙	30,000	변미숙	15,000	신혜현	10,000	윤정숙	50,000
구지명	10,000	김성연	300,000	김준범	30,000	박경연	30,000	봉원교회	1,500,000	심경오	200,000	윤종홍	10,000
구충회	15,000	김성오	500,000	김지혜	30,000	박기성	30,000	빈성문	30,000	심규영	20,000	윤현애	3,000
권영철	300,000	김성익	30,000	김지훈	10,000	박난희	3,000	서기숙	30,000	심애선	9,000	윤후남	15,000
권오현	30,000	김세택	30,000	김진환	30,000	박노은	60,000	서규진	30,000	심영수	15,000	음창윤	30,000
권혁록	15,000	김세환	60,000	김창빈	30,000	박단비	15,000	서규현	30,000	심영순	15,000	이 민	30,000
길광섭	150,000	김소진	150,000	김창식	300,000	박명규	30,000	서미지	3,000	심우관	60,000	이강곤	15,000
길욱현	300,000	김수정	5,000	김태규	60,000	박명심	150,000	서민균	20,000	심재익	30,000	이경숙	60,000
김 상	90,000	김수진	20,000	김태동	30,000	박미란	4,000	서승아	30,000	심정보	20,000	이경애	15,000
김 선	15,000	김애정	60,000	김태현	15,000	박병준	10,000	서영주	6,000	심중애	30,000	이경옥	15,000
김 정	60,000	김양민	30,000	김택수	15,000	박병황	30,000	서창석	30,000	안경남	20,000	이경우	20,000
김가영	20,000	김양희	30,000	김필호	15,000	박병훈	4,000	성세용	60,000	안성일	10,000	이경호	30,000
김경남	10,000	김여순	30,000	김하영	40,000	박보나	30,000	성수진	180,000	안재남	10,000	이경희	3,000
김경남	3,000	김연희	20,000	김향이	15,000	박복남	30,000	성수한	30,000	안혜경	30,000	이교우	10,000
김경돈	30,000	김영숙	9,000	김현미	3,000	박석현	30,000	성오준	20,000	양명자	15,000	이규택	10,000
김경렬	30,000	김영식	30,000	김현미	90,000	박선희	10,000	성태경	150,000	양봉준	30,000	이기창	30,000
김경렬	30,000	김영신	150,000	김현정	30,000	박선희	30,000	성향란	15,000	양세훈	3,000	이대원	5,000
김광렬	30,000	김영아	10,000	김현주	10,000	박성일	60,000	소경희	300,000	양진영	30,000	이대원	66,000
김광륜	30,000	김영일	100,000	김형수	30,000	박세홍	15,000	소응향	18,000	양철석	6,000	이명숙	10,000
김광혁	90,000	김영희	15,000	김홍근	30,000	박순희	15,000	손영희	60,000	어영희	30,000	이문석	20,000
김규호	100,000	김영희	20,000	김환섭	15,000	박영화	3,000	손유정	15,000	엄미진	30,000	이문석	20,000
김기찬	60,000	김예지	30,000	김효진	60,000	박옥자	50,000	손정민	30,000	여태구	6,000	이미경	20,000
김기혁	60,000	김용관	6,000	김훈상	30,000	박용부	15,000	손정숙	150,000	염숙자	30,000	이미순	150,000

이미영	60,000	이재아	30,000	장광자	15,000	정인희	30,000	최광돈	30,000	홍성은	20,000
이미화	30,000	이재원	100,000	장병순	30,000	정일순	15,000	최규영	6,000	홍순현	20,000
이민우	25,000	이정환	10,000	장성환	30,000	정자영	30,000	최동진	9,000	홍은하	15,000
이민표	30,000	이종화	60,000	장세명	150,000	정정애	150,000	최부걸	30,000	홍정표	30,000
이민호	15,000	이주연	30,000	장세철	30,000	정창현	30,000	최석화	15,000	홍현주	30,000
이복현	30,000	이주은	30,000	장영진	30,000	정혜선	1,000,000	최선미	15,000	홍희선	3,000
이부자	30,000	이종록	10,000	장종훈	30,000	정혜정	30,000	최성주	90,000	황보현	15,000
이상례	30,000	이지영	30,000	전병준	30,000	정화선	20,000	최순아	40,000	황성애	15,000
이상윤	10,000	이지혜	20,000	전병현	30,000	정화식	150,000	최영록	4,000	황성호	30,000
이상현	15,000	이진모	500,000	전선희	30,000	정화선	6,000	최영선	15,000	황수현	30,000
이상희	6,000	이진수	30,000	전예순	30,000	조규숙	30,000	최영숙	10,000	황인순	30,000
이선민	20,000	이진수	30,000	전정애	100,000	조낙행	3,000	최용수	15,000		
이선희	30,000	이차돈	15,000	전창선	60,000	조명숙	20,000	최우심	30,000		
이성목	15,000	이찬호	30,000	전태우	100,000	조민영	20,000	최재철	15,000		
이소영	30,000	이창희	10,000	전현순	3,000	조승래	30,000	최재혁	30,000		
이송이	150,000	이태진	90,000	전화자	20,000	조영순	1,000	최정희	90,000		
이수진	15,000	이하정	30,000	정경애	60,000	조윤미	10,000	최종호	30,000		
이수진	80,000	이한순	3,000	정노경	9,000	조은경	10,000	최진철	30,000		
이수창	6,000	이향숙	30,000	정다운	30,000	조의제	30,000	최진환	30,000		
이순희	15,000	이현정	30,000	정동수	30,000	조인섭	30,000	최창환	60,000		
이승일	15,000	이형석	30,000	정두언	10,000	조재훈	10,000	최화숙	30,000		
이승희	3,000	이혜영	15,000	정문영	30,000	조창배	30,000	최효정	90,000		
이영민	150,000	이혜진	10,000	정부자	60,000	조창호	30,000	최효정	150,000		
이영석	60,000	이혜찬	150,000	정선희	15,000	조철호	40,000	최희진	30,000		
이영희	9,000	이훈복	20,000	정송조	15,000	조하나	10,000	하경락	30,000		
이옥림	9,000	임경숙	3,000	정수정	30,000	조현경	15,000	하소림	30,000		
이우연	30,000	임명옥	60,000	정순임	20,000	조현성	15,000	한규영	15,000		
이원하	35,000	임미정	3,000	정승혜	30,000	조효숙	15,000	한덕연	15,000		
이윤희	30,000	임영주	30,000	정연홍	30,000	주경택	30,000	한유상	30,000		
이은엽	60,000	임오례	15,000	정영석	30,000	주아라치	15,000	한정숙	15,000		
이은용	15,000	임응선	30,000	정유진	300,000	지성림	100,000	허경희	60,000		
이은주	30,000	임정규	30,000	정윤경	3,000	진기혁	30,000	허명숙	10,000		
이은주	30,000	임정식	30,000	정은경	60,000	차승훈	30,000	헌희복	15,000		
이은철	66,000	임정혁	30,000	정은순	30,000	최경숙	30,000	홍미애	40,000		
이장현	30,000	임종순	30,000	정이안	60,000	최경희	30,000	홍보람	90,000		
이재성	20,000	장계영	60,000	정인석	30,000	최경희	30,000				

임원후원

김태진	7,500,000
문희중	200,000
신언향	300,000
전호석	90,000
이청자	300,000

물품후원

자방	1,783,500
초아산업(주)	92,797,000

단체 및 기업후원

우림기획	30,000
유한양행	150,000
이훈구(금천양문교회)	2,400,000
일식조수사	167,000
주신에이브이티(주)	600,000
지역아동부모회	170,000
태림산업(주)	20,000
한일기연 김문수	800,000
한화에스앤씨(주)	6,000,000
한화케미칼(주)	22,500,000
해든에이디(주)	60,000

2014년 6월 21일 ~ 9월 20일

총금액

192,785,079원



산하기관별 후원현황

2014년 6월 21일 ~ 9월 20일

구립서대문여성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다솜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다솜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아이티 공동생활가정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보호센터		하누리 주간보호센터	
최현주	30,000	유형준	90,000	김균도	100,000	박영규	150,000	전미자	30,000	김성진	100,000
		이영숙	30,000	김주형	330,000	정화선	300,000			김홍희	30,000
		추경수	20,001	다솜부모회	300,000	하여철	300,000			백원일	50,000
		한지원	90,000	위호정	100,000					윤복희	20,000
계	30,000	계	230001	계	830,000	계	750,000	계	30,000	계	200,000